

'농산물 유통 활성화 정책' 효과

익산시, 2017년 578억원→2023년 1282억원... 과감한 유통·판매 전략

익산시가 시대에 맞는 과감한 유통·판매 전략으로 지역 농민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를 책임지고 있다.

익산시는 농업인이 판로 걱정 없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든든한 농산물 유통·판매망을 구축해 매출 강화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목표 매출액은 지난해 매출 1,282억 원 보다 118억 원 더 많은 1,400억 원이다.

앞서 시는 농민과 가까운 곳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기 위해 2017년 본청과 15km 떨어진 함열읍에 북부청사를 개청했다. 오로지 농민을 위한 진심 어린 고민 끝에 내린 결단이었다.

시는 바이오농정국 북부청사 이전을 계기로 대대적인 '농산물 유통 활성화 정책'에 본격 돌입했다.

중점 3대 분야인 △원예농산물 통합 마케팅 △기업 맞춤형 익산 쌀 생산·유통 △푸드플랜에 대한 집중 공력이 시작됐다. 그리고 진심은 결과로 나타났다. 익산 농산물 매출은 2017년 578억 원에서 지난해 1,282억 원으로 6년여 만에 두 배를 넘긴 122%의 성장을 기록했다.

시는 올해도 35개 세부 사업에 7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생산 조직으로부터 유통·공급 단계에 이르기까지

더욱 고도화한 유통·판매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시는 생산자조직과 통합마케팅 조직의 연계를 강화한다. 정부 산지 유통 정책에 발맞춰 딸기 수박, 고구마 등 전문품목을 집중 육성하고, 포장 형태나 상품 크기, 속도 등 소비지 요구 사항을 빠르게 반영할 수 있도록 조직 간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 대형마트나 주요 백화점, 온라인 판촉 활동으로 판로를 확대하고, 익산시 고품질 농산물 브랜드인 '탑마루' 홍보를 통해 지역 농산물 가치를 향상시킨다.

두 번째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동참하는 기업 맞춤형 쌀 공급 체계를 굳건히 다진다. 시는 저조한 쌀 소비량 분위기 속에서 대기업 수요에 맞춰 전국 최초 저탄소 인증 원료곡을 생산해 대량으로 공급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즉석밥을 생산하는 씨제이(CJ)와 (주)농림, 본이이피 등 다수 기업에 3만 7863톤 가량의 원료곡을 공급해 60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시는 그간 행정 주도로 추진된 익산 쌀 생산과 유통체계를 강화하고자 농협·미곡종합처리장(RFC) 등 경영체와 생산 농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대기업 관계자를

초청하는 행사와 교육, 베품질관리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익산시 먹거리 통합체계(푸드플랜)에 대한 확장도 이뤄진다. 시는 하림을 비롯한 향토 기업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이 필요로 하는 신선한 농산물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방학 중 초등 돌봄교실에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만든 건강 도시락을 배급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이는 농가의 판로 확대와 청년 도시락 업체의 사업 확장, 방학 기간 어린이 건강까지 책임질 수 있어 여러 방면에서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다.

시는 익산 생산 농산물을 지역 소비자 및 직거래하는 로컬푸드와 공공급식 등 기존 푸드플랜 선순환 통합체계에 대한 운영도 차질없이 해나갈 방침이다.

김형순 바이오농정국장은 "그동안 성장 가속과 외연 확장을 위해 달려 왔다면 이제 연계 강화를 통한 유통 내실화와 지역 선순환 체계 구축에도 집중할 것"이라며 "시민에게 건강한 지역 먹거리를 제공하고 도시와 기업, 농민이 상생하는 유통체계 구축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성과발표회 성료

강소특구 수혜기업·창업기업 등 총 55개사 성과물 전시·홍보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 성과발표회가 21일 군산 새만금 컨벤션센터(GSCO) 1층 컨벤션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성과발표회에는 고정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장, 홍두진 새만금개발청 원소통지원센터장, 오택립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산업국장, 강임준 군산시장, 이강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본부장을 비롯하여 국회의원 및 도·시의회 의원, 대학교 총장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강소특구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한 감사패 수여 △2023년에 설립된 연구소기업 현판 수여 △강소특구 성과홍보 및 추진전략 △강소특구 사업화 연계 MOU 체결 △강소특구 혁신기관 협력 퍼포먼스 △수혜기업 홍보부스 참관으로 진행되었다.

2020년 7월 지정된 군산 강소특구는 그간 기술혁신기관의 우수기술 발굴, 혁신기관과의 협력을 진행해 왔으며, 특화 분야인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 분야의 성장을 위해 기업 밀착형·맞춤형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3년 동안 공공기술 이전 108건, 연구소기업 등록 20건, 창업 35건, 투자연계 217억 원, 고용창출 720여명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 바탕으로 2024년도에는 △특화 분야 수요 기반 유망기술 발굴 및 기술사업화 △기술창업 및 기업 단계별 맞춤형 성장지원 △지역 특화분야 클러스터 육성지원 등 3대 중점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친환경 전기차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전력 질주할 계획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

에서도 강소특구 사업이 성공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작년 7월에 새만금이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된 만큼 올해엔 이차전지와 친환경 전기차를 연계, 연관기업을 발굴하고 특구 내 기업을 유치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민석 강소특구육성사업단장은 "강소특구 육성사업단에서는 군산대의 우수한 역량과 협력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기술발굴·사업화·성장'까지 체계적으로 기업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한 단계 더 도약하여 군산 강소특구가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 분야에서 지역 및 국가 경제 활성화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베트남 계절근로자 직접 선발

익산시, 서류 합격 138명 대상... 농업 경험·건강 상태·근로 의지 심사

익산시가 귀한 농촌인력을 구하기 위해 베트남 출장단을 파견했다.

김문혁 익산시 바이오농업과장을 비롯해 직원들로 구성된 출장단은 21~22일 이를 일정으로 베트남 덕락성 에이아습현을 찾아 2024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선발했다.

시와 에이아습현은 지난해 2월 13일 계절근로자 파견과 수용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업무협약에 따라 시는 올해 에이아습현에서 102명의 계절근로자를 뽑아 익산지역 농가에 배치할 예정이다.

지난해의 경우 계절근로자 선발을 에이아습현에 전면 위임해 진행했으나, 이번에는 지역에 더욱 적합한 근로자를 선발하기 위해 시에서 직접 면접에 참여하게 됐다.

이번 면접은 사전에 모집한 187명 중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13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심사를 통해 각 지원자의 농업 경험이나 건강 상태, 근로 의지, 기초체력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봤다.



면접을 통해 선발된 근로자는 무단 이탈 방지와 근로기준법·한국어 교육 등의 과정을 거친 뒤 오는 4월 초 단체로 입국하게 된다.

특히 시는 이번 출장에서 에이아습현 관계자를 만나 계절근로자 무단 이탈 방지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두 자치단체의 협업을 통해 계절근로자 무단 이탈을 최소화하고 제도 운영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형순 바이오농정국장은 "우수한 인력을 농가에 지원하기 위해 선발부터 관리까지 꼼꼼히 챙겨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의회 최종의장 상습침수지역 점검 나서

익산시의회 최종의장은 지난 20일 오전 모현동 상습침수지역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점검은 비가 오면 자주 침수가 발생하는 모현동 성진교회 인근을 방문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예상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관련부서인 하수도과와 모현동 직원들이 동행했다.

최종의장은 현장에서 직접 상습침수지역을 꼼꼼히 살펴보고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집행부 직원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최종의장은 "시민들의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며 앞으로 시민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시민들의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벼 재배면적 감축 5월 말까지 협약 신청

군산시는 쌀 생산과잉 해소 및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하여 이달부터 5월말까지 벼 재배면적 조정 감축 협약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참여 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며, 지난해 벼를 재배한 논에 올해 타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을 계획한 필지, 지난해 전라지불 또는 감축협약에 참여한 필지 중 타 작물 재배 또는 휴경이 이어지는 경우가 해당된다.

타 작물 종류에는 일반작물(옥수수, 인삼, 들깨, 참깨 등), 콩 등의 두류, 하계작물(포도, 사과, 딸기 등)이 포함되며,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이 가능하므로 같은 기간에 신청받고 있는 전라지불과 함께 신청 접수하면 된다.

신청받은 농지에 대해선 6~7월 벼 재배 전수 점검 후, 감축 이행면적 기준 ha당 최대 300포대 공공비축미를 추가 배정할 계획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철새 복상 시기 조류인플루엔자 '철통방어'

익산시가 철새 복상 시기를 맞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확산 저지에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올겨울 익산에서는 지난해 12월 6일 한 종계 사육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 발생한 후 4건이 추가로 발생했다. 다만 올해 들어 추가 발생은 없으며, 현재 방역에도 모두 해제된 상태다.

그럼에도 시는 경계를 늦추지 않고 조류인플루엔자 위기 경보 '심각' 단계에 맞춰 가축 질병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는 긴급상황 대응 체계를 유지

하고 있다.

우선 시는 거점소독시설 3개소와 철새도래지 통제초소 1개소를 휴일 없이 24시간 운영한다. 가금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은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마치고 소독 필증을 받아야 농장에 출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지역 가금 농가 131호에 전담관을 지정해 소독 여부와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는 농장별 방역관리 책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염병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도 각 농가에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시, 구도심 활성화 '치킨로드' 조성 박차

익산시가 구도심(중앙동)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치킨 로드'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치킨로드 조성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참여 의향을 밝힌 예비 창업자와 21일 간담회를 실시했다.

치킨로드 조성사업은 익산시가 대한민국 대표 닭고기 기업이자 향토기업인 (주)하림과 손잡고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의식 창업자와 닭요리 업종전환 희망자를 모집해 구도심(중앙동) 일대에 닭을 주제로 한 음식특화거리를 조

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치킨로드 조성사업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의식 창업·식품산업·닭요리 등 분야별 전문 교육을 진행해 총 34명의 수요자를 배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교육 수요자 중 사업참여 의향이 있는 예비 창업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사업 추진 계획 및 방향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필요한 절차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해 예비 창업자의 공감과 호응을 얻었다.

/*익산=이재훈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